

나는 담배를 공공 장소에서 피우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나도 담배를 공공 장소에서 피우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담배의 광고도 금지해야 합니다. 담배의 광고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은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즉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담배를 공공 장소에서 필 수 없다고 하는 규칙은 담배를 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커다란 불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수명을 짧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담배는 가능하면 자기 혼자서,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끼리 피워야 합니다.

최근 담배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것도 담배의 좋지 않은 영향을 낮추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지만 지금보다 강력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공공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합니다.